

충성과 용기로써 신조로 삼는
오렌지 공의 역센 후예들!
붉은 침략자와 싸우다가 피를 흘린
768명의 고귀한 희생자들!
우리는 그들의 명복을 빌고
또 빛나는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에 비를 세운다.
(본문 내용중에서)



향토사료
제27집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말하는
6.25전쟁
횡성지역의 전투가

— 김 동 정 —

횡성문화원

향토사료 제27집

횡성전투의 전적지를 찾아서

- 횡성지역의 전투가 말하는 6.25전쟁 -

김 동 정

횡성문화원



김 동 정

1961년 강원도 삼척 출생으로 강릉고등학교와 관동대학교 역사교육과를 졸업하였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문학박사)하였다. 중앙대학교 민족발전연구원 전임연구원과 울곡교육원 연구교수·관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강릉원주대·강원도립대·중앙대 등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강원지방경찰청 『강원경찰전사』 자문 및 감수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강원도청 강원도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원주문화원 이사, 가톨릭관동대학교 겸임교수도 겸하고 있다.

연구업적으로는

『학살의 계곡이 말하는 리운더업 작전의 횡성전투』, 『동양문화사의 새로운 이해』, 『역사와 문화』(공저), 『국역 봉서유고』(공역), 『역주 자치통감』(32책, 공역), 『국역 의암집』(공역), 『국역 습재선생문집』(공역), 『정선군지』(공저), 『강원도사』(1~9, 공저), 『향토고전번역총서』(공역) 등. 그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